

- 7월 22일 수요말씀은 <게시 한 편>과 <잠언 말씀>으로 진행됩니다.

이번에 전할 게시는 선생님께서 ‘전체 설교’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즉시 생방송이 가능한 ‘주님의교회’에서 진행됩니다.

- 먼저 각 교회는 찬양으로 수요일예배를 준비합니다.

- 저녁 8시가 되면, 생방송을 시작합니다.

주님의교회에서 사회자가 나와서 잠시 전초해 주고,
게시자가 나와서 게시를 전하며 전체 설교를 합니다.

- 다시 주님의교회에서 사회자가 나와서 짧은 마무리를 해 주고,
생방송을 마칩니다.

- 이어서 각 교회 교역자 및 설교자가 각 교회 단상에 서서
<잠언에 대한 전초>를 짧게 해 주고, <잠언>을 전해 줍니다.

<잠언>도 설교처럼 은혜롭게 심정적으로, 강약을 조절하면서
띄워서 읽기를 잘하면서 시선 처리, 발음에 신경 쓰면서 전합니다.

- 말씀을 마치면, 수요일예배를 은혜롭게 마치도록 이끌어 줍니다.

<2015년 7월 22일 수요일말씀>

<말씀 시작>

- ◆ 사람이 ‘필요성’을 못 느끼면, 하려고 하지 않는다.
얼마나 ‘필요성’을 알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게 된다.
- ◆ <새벽기도>도 얼마나 ‘필요한 것’인지 깨달아야 하려 하고,
<휴거>도 얼마나 ‘필요한 것’인지 깨달아야 되려고 한다.
- ◆ <휴거>는 ‘영원한 죽음과 고통’,
혹은 ‘영원한 생명과 기쁨’을 좌우한다.
- ◆ <휴거되지 못한 자>는 수백만 가지를 ‘실패’한 것이다.
- ◆ <휴거된 자>는 수백만 가지를 ‘성공’한 것이다.
- ◆ <휴거된 자>는 ‘생명을 구원한 자’다.
- ◆ <자기 육의 생명>이 죽지 않으면,
자기의 ‘살아 있는 몸’을 가지고 일생 가운데 수만 가지 일을 한다.

고로 <자기 육의 생명을 죽지 않게 구원한 자>는
수만 가지 성공을 한 것과 같다.

그러나 <자기 육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 자>는
자기 ‘육’이 죽었으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.

고로 수만 가지를 실패한 것이다.

- ◆ <휴거>는 ‘육’을 구하고 ‘영’을 구한 것이다.
고로 ‘육신 일생 동안’ 살고, ‘영은 영원히’ 살게 된다.
고로 수백만 가지를 성공한 것이다.
- ◆ <휴거된 자>는 다 성공한 자다.
- ◆ <휴거>는 ‘인생의 핵 성공’이다.
- ◆ 인생이 다 성공해도 ‘핵’을 성공하지 못하면,
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.
- ◆ <인생 최고의 핵 성공>은 ‘육 구원, 영 구원’이고,
<최고의 핵 구원>은 ‘휴거’다.
- ◆ <창조 이후 최고의 구원>은 ‘휴거 구원’이다.
- ◆ 시장에 각종 물건들이 많고 많다.
 그 많은 물건들 중에서
 ‘자기가 최고로 필요했던 물건을 사는 것’이 <구원>과 같다.
 ‘시장 전체를 사는 것’이 <휴거>와 같다.
- ◆ <구시대 구원>은 ‘구시대 차원의 구원’이다.
- ◆ <휴거>는 ‘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일’로서
‘더 이상 없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’이다.

- ◆ 어떤 남자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.

그 남자의 최고의 소원은

‘그 여자를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’ 이었다.

그래서 첫 단계로 그 여자를 ‘자기 회사의 직원’ 으로 썼다.

이 단계가 <구약 종급 구원>이다.

그다음에 여자를 사귀어 겨우 ‘자기 형제’ 같이 대했다.

이 단계가 <신약 자녀급 구원>이다.

그다음에는 ‘최고로 원하던 소원’ 을 이룰 단계였다.

곧 ‘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같이 사는 단계’ 다.

고로 여자를 더 사귀고 키워서 ‘자기 사랑의 대상’ 으로 삼았다.

이 단계가 <성약 신부급 구원>이다.

그리고 거기서 더 키우고 만들어서 결혼하여 같이 살게 되었다.

이 단계가 <휴거>다.

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단계로 역사를 펴 오셨다.

지금은 <휴거 기간>이다.

곧 <사랑의 대상, 신부>로 만들고 뽑는 기간이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사람>은 ‘자기 최고의 뜻’ 을 이뤄야
더 이상 없이 최고로 기뻐하고 만족한다.

- ◆ <하나님>도 ‘자기 최고의 뜻’ 을 이뤄야
그제야 최고로 기뻐하고 만족하신다.

- ◆ <삼위일체가 최고로 원하시는 뜻>이 있다.
곧 인생들이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는 것’ 이다.
이럴 때 성삼위는 최고로 기뻐하신다. 그것이 곧 ‘휴거’ 다.

- ◆ <휴거의 때>가 와서
인생들이 <휴거의 말씀>을 듣고 행하여 <휴거>될 때,
성삼위는 그리도 기뻐하신다.

- ◆ <삼위의 사랑의 대상>이 되어 주면,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그 사람의 <육신>을 ‘자신의 몸’ 으로 삼고 쓰신다.

그리고 그 <영>은 ‘하늘나라 형체’ 로 변화되어
삼위일체의 ‘사랑의 대상’ 이 되어
<천국 황금성>에서 영원히 ‘신부’ 로서 살게 된다.

하나님은 ‘이것’ 을 목적하고,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다.

- ◆ 인간은 모르니, <육신>을 가지고
‘이 세상’ 에서 잠깐 ‘육의 사랑’ 을 즐기다가 결국
 - 그 <육신>도 ‘창조자의 사랑이 없는 삶’ 을 살다가 끝나고,
 - 그 <영혼>도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’ 이 되지 못하고
‘고통의 영’ 으로 형성되어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된다.

- ◆ 창조자 ‘하나님, 성령님, 성자의 사랑의 대상’ 이 되지 못하면,
<자기 인생 최고의 뜻>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.

- ◆ <인생 최고의 뜻>은 ‘사랑’이다.

큰 자이든, 작은 자이든 어느 누구라도

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.

그러나 ‘이 위대한 사랑’을 창조자와 일체 되어 이루지 못하면,

<사랑>도 실패한 것이고 <인생>도 실패한 것이다.

- ◆ ‘사랑’,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.

- ◆ 땅에서 ‘구원자’를 만나 ‘그 말씀’을 듣고,
‘삼위일체’를 알고 ‘삼위일체의 뜻’을 알고,
‘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’을 알고,
‘그 말씀’대로 행하여 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이루었으면,
→ 그것이 ‘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어 준 것’이다.

이렇게 살지 못하여 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깨뜨리면,

→ 그것이 ‘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다 깨뜨린 것’이다.

- ◆ <큰 목적>을 이루었으면, <다른 작은 목적들>도 다 이룬 것이다.

- ◆ <휴거된 자>는 ‘만 가지를 성공한 자’다.

- ◆ <하나님, 성령님, 성자의 최고 목적, 최고 소원>을 이뤄 준 자가
‘지구 역사상 최고로 큰 자’다.

- ◆ 한 개인이 있는데, <그 사람이 원하는 최고의 목적>을 이뤄 준 자가
그의 일생에 있어서 ‘최고로 큰일을 해 준 자’라고 할 것이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<창조 목적을 이루어 휴거시킨 자>를
'창조 이후 최고로 큰일을 해 준 자' 로 보신다.

- ◆ <최고 목적을 이뤄 준 자>가 '최고의 위치' 에 간다.

<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인 창조 목적을 이뤄 준 자>가
천국 최고의 위치인 '황금성' 에 가고,
삼위 앞에 최고의 위치인 '사랑의 신부 위치' 에 간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

<인간을 사랑의 대상>으로 만들어 '최고의 소원' 을 이루도록
단계별로 구원 역사를 펴 오셨다.

곧 구약 소생기 역사 - 신약 장성기 역사 - 성약 완성이 역사다.

<구약> 때는 믿는 자들을 '종' 같이 대하며
4000년 동안 역사를 펴 오셨다.

<신약> 때는 '구원자 예수님의 몸' 을 쓰고
사랑의 목적을 두고 믿는 자들을 '자녀' 같이 대해 주고 사랑하며
2000년 동안 역사를 펴며 구원해 오셨다.

그러나 신약 때는 '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소원' 을
완전히 이루지 못했다.

다만, 예수님의 몸을 통해 인생들을 삼위일체 앞으로 바짝 당기며
'자녀' 같이 대해 주며 역사를 펴셨다.

아직 ‘최고의 소원, 최고의 목적’ 이 남아 있었다.

곧 인생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향해 사랑의 눈을 떠서
삼위일체를 사랑하는 단계다.

고로 이 세상에서 자녀급 주관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최고로 사랑하여
삼위 앞에 인정받은 자 ‘한 사람’ 을 뽑아서
그를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’ 으로 삼고,
그를 시대에 세워 그를 통해 ‘하나님의 사랑의 뜻’ 을 이루며
〈삼위의 마지막 소원, 최고의 소원을 성취하는 역사〉를 펴신다.

곧 <성약 신부급 1000년 역사>이며,
그가 살아 있는 당세에 이루는 <휴거 역사>다.

◆ <휴거 역사>는 ‘사랑의 역사’ 다.

곧 사랑하여 ‘같이 살려고 데려가는 역사’ 다.

<육>은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, 신부’ 로서
육이 살아 있는 동안 <땅>에서 ‘구원자’ 와 함께 혼인 잔치 하고,

<영>은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’ 이 되어
<천국 황금성>에서 ‘삼위와 영원히 같이 사는 역사’ 다.

◆ <휴거된 영들>, 곧 <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된 영들>은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
매일 ‘사랑의 대상’ 으로 사랑해 주며 쓰신다.

그 <육신들>도 매일 ‘사랑의 대상’ 으로 사랑하며 쓰신다.

그러나 <자녀급 구원을 받은 자들>은 달리 대하신다.

마치 한 가정의 아버지가

<어머니>를 ‘자기 사랑의 대상’ 으로 삼고 사랑하고

<자녀들>은 ‘자녀’ 로서 사랑하는 것같이

<자녀급 구원을 받은 자들>은

그 육도 영도 ‘자녀급 주관권’ 에서 살게 하시고,

매일 ‘자녀’ 로서만 사랑하며 쓰신다.

- ◆ 한 가정에 한 남자가 있다.

<그 남자의 사랑의 대상>은

‘자기가 사랑해서 데려온 여자 한 명뿐’ 이다.

오직 그 여자 한 명만, 오직 그 남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산다.

<나머지>는 ‘형제들’ 로서,

사랑하더라도 ‘형제 사랑’ 을 하면서 산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러하시다.

하늘나라 전체, 이 세상 전체를 두고

<사랑의 대상>으로 삼고 사랑하며 같이 살 자들은

오직 ‘사랑의 대상, 신부로 휴거된 자들 뿐’ 이다.

나머지는 구원받았더라도 ‘자녀’ 같이 대하신다.

- ◆ <휴거된 육과 영>은

항상 ‘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’ 이 되어

‘사랑의 대상’ 으로만 쓰인다.

무엇을 하든지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’ 으로만 쓰인다.

<휴거된 옥과 영>도

삼위일체를 오직 ‘사랑의 대상’ 으로 대하고 산다.

이것이 삼위일체가 최고로 원하시는 일이며,

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.

◆ <자녀급 구원을 받는 자들>은

삼위일체가 ‘자녀 취급’ 만 하는 것이 아니고,

마치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같이 살듯이

실제로 항상 ‘자녀’ 로 대해 주고 사랑해 주고 쓰신다.

<신부로 구원받고 휴거된 자들>은

삼위일체가 ‘신부 취급’ 만 하는 것이 아니고,

마치 한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하며 같이 살듯이

실제로 항상 ‘사랑의 대상’ 으로 사랑해 주며 같이 살아 주신다.

◆ <삼위일체가 ‘사랑하는 자 취급’ 만 해 주는 자들>은

‘신약 자녀급 구원을 받은 자들’ 이다.

<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삼위와 사랑하면서 사는 자들>은

‘성약 신부급 구원을 받고 휴거된 자들’ 이다.

◆ 땅도 사 놓고 ‘자기 땅으로 취급만 하는 땅’ 이 있고,

그중에서 ‘자기 집을 짓고 사는 땅’ 이 있다.

<자기 땅으로 취급>만 하는 땅은, ‘하나의 정원’ 에 속한다.

이와 같이 <휴거된 신부>라도

각자 사랑의 행위대로 ‘신부 취급만 받는 자’ 가 있고,

매일 삼위를 사랑하며 사는 진정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서
실제로 ‘삼위와 같이 사는 자’가 있다.

<휴거된 신부>라도

매일 잊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사랑하며

매일 떨어지지 않고 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사는 자가

<하나님의 창조 목적, 최고의 소원>을 이뤄 준 것이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극지의 목적은 ‘사랑’이다.
곧 ‘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같이 사는 것’이다.

인간의 극지의 목적도 ‘사랑’이다.

곧 ‘창조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창조자와 같이 사는 것’이다.

극과 극이 하나 되는 것이 ‘사랑하며 사는 휴거의 삶’이다.